유생들이 먼저 알아본 의승장 영규 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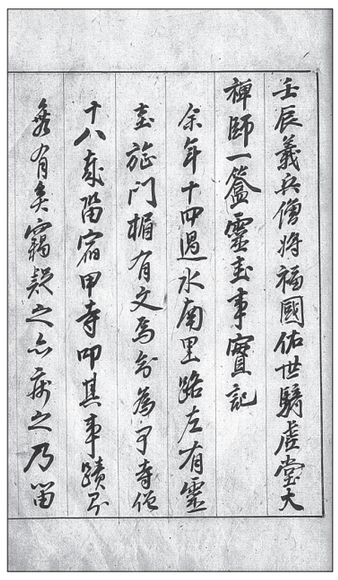
김성순 연구위원, 첫 공개 '영규사실기' 분석 ·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2일 동북아불교硏 학술대회서
영규 대사 기록 희소 '중요자료'

서산 · 사명 비해 불교 선양 전무
200년 후 계룡산에 사우 마련돼
"영규사실기, 불교 · 유교 시각차
해소 위한 유교 지식인의 노력"
고양 원각사 소장 성보들 조명도





임진왜란 당시 의승장으로 활약한 기허 영규대사의 진영(사진 왼쪽)과 영규대사의 행적이 담긴 사실기(사진 오른쪽)의 모습. 사실기는 고양 원각사가 소장하고 있으며 학술대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장으로 활약했던 기허 영규 대사의 행장이 담긴 기록이 발굴돼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기록 분석 결과 영규 대사의 공적은 서산계에 비해 불교 내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영규 대사의 선양은 유교적 시각이 가미돼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김성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은 6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양 원각사(주지 정각) 개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제9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갑사 사적을 통해 본 의승군 영규대사의 활동 연구'를 발표한 김성순 연구위원은 원각사에 소장된 〈갑사사적(岬寺史蹟)〉에 수록된 '임진의병승장복국우세 기허당대선사일합영규사실기(壬辰義兵僧將福國祐世騎虛堂大禪師一盒靈圭事實記, 이하 영규사실기)'를 분석했다.

〈갑사사적〉은 '갑사사적시종기'와 한시, '영규사실기'로 구성돼 있으며, 학산 거사 김상표가 서(序)를 쓰고, 호은산인 임옥현이 저술한 것이다.

특히 대중에 처음 공개된 '영규사실기'는 비문 외에 영규 대사 관련 기록이 거의 없는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규 대사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영규사실기〉는 영규 대사의 생애 전반을 살핀다. 기록에 따르면 영규 대사는 계룡면 널티 출신으로 밀양박씨다. 그는 19세에 계룡산 만정 북록(현 연천봉) 청련암에서 출가했으며, 영변 묘향산에서 서산 문하에서 20년간 수학하며 여러 범어경전과 외서를 공부했다. 공부를 마친 영규 대사는 은사의 뜻에 따라 갑사로 가서 주석하게 된다.

또한 〈영규사실기〉에는 영규 대사가 갑사에서 불목하니로 살았다는 것을 대응하기 위한 윤색들이 보여진다. 〈영규사실기〉에는 영규 대사가 갑사에 있으면서 사제들을 도와 스스로 장작을 잡았고, 이를 쪼개 목검처럼 사용해 무예를 익히는 것이 묘사돼 있다. 기다란 박달나무를 창고에 숨겼다고 기술돼 있는데, 이는 전란을 예지하고 무기가 될 만한 나무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게 김성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승병을 모집해 전장으로 간 영규는 의병장 조헌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는 전과를 세우지만 1592년 8월 18일 금산 연곤평에서의 전투에서 영규와 조헌의 부대는 격전 끝에 전멸하게 된다. 영규의 의승군 활동은 임진왜란 초기에 이뤄진 것으로 이후 승병궐기의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전란 이후 영규 대사는 불교 내부에서는 추승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실제 영규 대사 사후 200년이 지나서야 계룡산에 진영각이 세워진 것은 이를 설명해주는 단초다. 반면 영규 대사 추승은 당시 지도층이었던 유학자들에게서 이뤄졌다.

18세기 학자인 황경원(1709~1787)은 〈강한집〉 '영규대사사절기'서 유교적 인간상인 '인인(仁人)'을 승려인 영규에게 대입하고 있다.

조인영(1782~1850)은 자신의 문집 〈운석유고〉에서 영규의 의승군 활동에 대해 '불은이 곧 군은(佛恩亦君恩)'이라고 정리하며, 불국토를 수호하듯 왕조를 수호하기 위해 전사한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18~19세기에 걸쳐 지도층을 중심으로 영규 대사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가 이뤄지자 그제서야 불교계도 반응하게 된다. 정규한의 문집 〈화산집〉 '기허대사충렬원기'에 따르면 영규 사후 200년이 지나서도 계룡산 갑사에 사우(祠宇)가 없는 것을 스스로 자책하는 승려들이 말이 인용돼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성순 연구원은 "영규에 대한 당시 불교계의 무관심은 그가 불목하니 출신이기 때문일 수 있고, 서산계 법맥에서 분명치 않은 그의 위치 때문일 수 있다"면서 "반면 후세 유생들은 불교보다도 훨씬 열성적으로 영규 대사를 부각시키려 했다. 사후 200년이 지나 세웠던 계룡산 사우마저도 유교 관료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영규사실기'는 영규 대사에 대한 불교와 유과 간의 시각적 불균형을 교정하려 했던 당시 유교 지식인들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앙승가대학 교수 정각 스님의 '조선통폐지인 연구',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원각사 소장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성수' 등을 발표했다.

"자살예방 종교활동에 박차 다짐"

한국종교연합 등 '생명존중 종교인대회'서 선언



생명존중 종교인대회에 참여한 종교인들이 '참회합니다' 문구를 쓴 플래카드를 들고 선언하고 있다.

"오늘의 선언이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내 7대 종교계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생명운동 네트워크' 구축을 다짐했다. 한국종교연합(URI, 상임대표 박경조)과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박인주)는 6월 18일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2019 생명존중 종교인대회 및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생명존중 종교인대회에서 7대 교단 소속 종교인들은 '생명살리기,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통해 생명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했다. 선언에는 가섭 스님(불교), 이재성 사관(개신교 구세군), 이찬구 이사(민족종교), 오병두 회장(유교), 이여정 교무(원불교), 윤태원 서울교구장(천도교), 윤시몬 수녀(천주교) 등 각 종교계 종교인이 대표로 참여했다.

윤호섭 기자

"생태 · 생명 방생, 녹색신행 자리매김을"

불교환경연대, '방생' 주제 녹색불교심포지엄 개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6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생명살림을 위한 생태적 방생문화를 위해'를 주제로 녹색불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필(必)환경 시대, 녹색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생문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6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생명살림을 위한 생태적 방생문화를 위해'를 주제로 녹색불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장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은 '불교적 삶과 방생' 발표를 통해 현재 방생문화를 진단하고 시대에 맞는 방생을 제언했다.

법장 스님은 현대적 의미의 방생문화의 근거를 〈범망경〉서 찾았다.

"〈범망경〉의 개념은 방생에 대한 보다 발전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고 역설한 법장 스님은 "우리는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만 생명이라 생각고 이를 풀어주는 방생을 했다. 앞으로의 방생은 모든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교환경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드나무 심기를 통한 수질정화운동 등과 같은 사업으로 방생은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공학과 교수는 '생태적 방생의 다양성과 버드나무심기운동의 가능성' 발표를 통해 불교환경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버드나무 심기운동이 어떻게 생태 방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오충현 교수는 "버드나무를 하천에 심게 되면, 주변 수질과 공기 정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중표 前 전남대 교수가 '불살생의 가르침과 방생, 생명살림의 전통'을,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이 '티베트불교의 생명존중과 방생문화'를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사항 톺아본다

조계종복지재단, 26일 복지포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재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 일괄변경으로 인한 통장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의 차질 발생 등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비효율적 행정업무가 늘어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호용 서기관의 발제가 이뤄진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장과 법인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02)6334-2212

윤호섭 기자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를 검색하시면 상세 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 02·720·9600

한국인을 위한 2019년도 *선착순 마감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11월 1일부터 출발, 법문일정 : 11월 4일-6일(3일간)
주 관 |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 여수석천사 진옥스님
▶ 법회 행사는 보시금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11/1 출발 달라이라마 법문 8일 ------ 230만원
B 11/2 출발 법문 + 델리관광 8일 ------ 230만원
C 11/2 출발 법문과 남인도 순례 11일 275만원
D 10/31 출발 법문과 인도 성지 15일 ---- 310만원
E 11/2 출발 법문과 부탄 순례 11일 ---- 410만원

황금빛 불탑의 나라 특가
미얀마 성지순례 7일
9월 20일 출발 ~ 9월 26일 도착
178 만원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양곤-바간-만달레이-
삔다야-헤호(2박)-양곤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구법의 길을 따라서
실크로드·돈황 10일
9월 20일 출발 / 10월 14일 출발 259 만원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15명 이상 인솔자 동행